



제목	Persepolis And Its Surrounding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Yassavoi Publications
발행일	2015.
저자	Heidemarie Kokh
출판국가	이란
페이지수	195
ISBN 또는 ISSN	978-9643062934

내용 요약

페르시아 제국에는 키루스 2세가 세웠던 최초의 도시 파사르가다에, 페르시아의 전신이었던 메디아 왕국의 수도 액바타나 등 많은 도시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 최고의 도시는 페르세폴리스이다. 페르세폴리스는 다리우스 1세의 즉위 직후인 기원전 522년경부터 시작되어 2대 후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재위 기간 동안 60년 이상 걸린 대공사를 거쳐 완성된 대도시였다. 처음 도시를 건설할 때는 주변 산악지대에서 채취한 석회암을 잘라서 사용했다. 잘라낸 석회암으로 먼저 동서 300미터, 남북 455미터, 높이 12미터의 기단 부분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왕궁의 문과 아파다나, 창고, 역대 왕들의 궁전 등을 건설했다.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사후에는 무덤도 함께 만들었다. 페르세폴리스의 건축물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메디아 양식이 뒤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부조의 구도는 이집트 기법이,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인물의 복식은 그리스 조각 기법이, 많은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궁전에서 는 메디아 양식이 발견된다.

이 책은 페르시아 관련 연구에서 권위 있는 독일의 고고학자 하이데마리 코흐의 저서로서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페르세폴리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 하이데마리 코흐의 연구가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선명한 도판사진과 일러스트를 포함한 이 책은 페르세폴리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